

해외의약뉴스

고지혈증 치료제가 잇몸염증을 감소시킨다.

의약품정책연구소

개요

최근 연구에서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계 약물이 잇몸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 결과, 잇몸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고용량의 고지혈증 치료제를 투여하였을 때 잇몸염증이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스타틴계 약물을 현재 가이드라인 이외의 용도로 약을 투여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키워드

스타틴계 약물, 잇몸염증, 아테롬성 동맥경화증, 콜레스테롤

최근 연구에 의하면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계 약물이 잇몸염증을 감소시키는 예상치 못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량의 고지혈증 치료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의 잇몸염증 상태를 영상을 통해 관찰한 결과, 잇몸염증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연구진들은 12주의 연구기간 동안 실험 참여자들의 염증 또는 아테롬성 동맥경화증의 징후를 관찰하였고, 잇몸염증 감소효과가 혈관건강의 향상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Ahmed Tawakol¹⁾ 박사는 “잇몸질환과 아테롬성 동맥경화증을 구분하는 문헌들이 많은데, 이번 연구 결과에서 잇몸 건강이 동맥의 건강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잇몸질환과 아테롬성 동맥경화증이 동반된 환자들은 잇몸치료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스타틴계 약물은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기 위해 사용된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혈관벽에 쌓이기 시작하고 동맥경화증을 유발할 수 있다. 함께 연구를 진행한 Journal editorial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3천만명 이상의 환자들이 스타틴계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는 2억명이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구 결과는 스타틴계 약물이 염증을 감소시킨다는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아테롬성 동맥경화증을 앓고 있거나 고위험군인 83명의 성인이 실험에 참여하였고, 피험자들은 무작위 배정으로 10mg 또는 80mg의 atorvastatin(LopitorTM)을 3개월 동안 복용하였다. 모든 피험자는 연구 시작 시점에 이미지를 촬영하였고 이후 4주와 12주 후에도 촬영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80mg의 atorvastatin을 복용한 사람들에게서 잇몸염증이 상당히 감소하였으며, 빠르게는 약을 복용한지 4주 만에 잇몸염증이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잇몸염증이 심할수록 더 큰 염증의 감소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 co-director of the Cardiac Imaging Trials Program at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and Harvard Medical School in Boston

Tawakol 박사는 “이번 연구는 원리증명시험(proof-of-principle trial)이며 추후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 확증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스타틴계 약물을 현재의 가이드라인 이외의 용도로 투여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Michael Blaha²⁾ 박사 또한 심질환의 위험요소 치료나 잇몸질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것에 동의했다.

■ 원문정보 ■

HealthDay News, Oct. 02, 2013

(<http://consumer.healthday.com/dental-and-oral-information-9/misc-dental-problem-news-174/statins-drugs-may-boost-your-gums-health-too-680723.html>)

2) Director of clinical research at the Johns Hopkins Ciccarone Center for the Prevention of Heart Disease in Baltimore